

유라시아의 시작이 될 '땅끝 해남'의 변화

자치CEO

명현관
해남군수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장마가 시작되고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여유롭게 회상에 잠길 상황은 아니지만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첫 출근길은 여전히 설레고 기대가 가득했다. 청사를 들어서 민선8기 전반기의 성과를 담은 전시를 둘러보면서 새삼 해남의 변화가 크게 다가왔다. 역대 최대, 최고, 최선의 결과를 가리키는 각종 지표들이 그동안의 땅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돌밭을 갈아옥토를 만드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마음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달려왔던 민선7기, 단숨에 역대 최대 국정 성과를 거두며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된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했다.

그리고 다시 민선8기의 2년, 해남군의 변화의 바람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더욱 거세졌다. 해남군은 민선8기 출범이후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군정의 전 분야에 도입하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우수(SA) 등급을 6년 연속 달성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신뢰받는 군정을 확립했다.

2019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이래 6년 연속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집행 평가 2

년 연속 전국 시·군 자치단체 1위, 국·도비 6659억 원·공모사업 3092억 원 확보 등 역대 최대 재정 성과도 눈부시다. 민선7기가 시작되던 2017년과 비교해 보면 본예산은 2배 가량 늘어났고, 1852억 원이던 국·도비도 2023년에는 3414억 원을 확보했다.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127건, 1501억원을 확보하면서 최근 5년간 공모사업으로만 603건, 6912억원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또한 매년 높아져 2년 연속 전국 시·군 자치체 1위를 차지하며 일 잘하는 군정, 돈 버는 군정이라는 혁신 행정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제 민선8기의 후반기는 해남의 20년, 30년을 좌우할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하여 해남 2030 프로젝트다.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점 조성, 고속철도(KTX) 해남노선 국가계획 반영 등 3대 역점사업을 비롯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농업연구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이 첫순에 꼽히는 사업들이다.

3대 역점사업 중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업단지 2개소, 총 26만 평이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영암호 인근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남, 완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도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끊임없는 설득과 타당성 제시를 통해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농업연구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등 민선7~8기 유치에 성공한 주요 국책사업들이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돌입했으며, 보성-해남-임성간 철도 2025년 개통, 국도 77호선 해남-신안 압해간 연결공사 2027년 완공,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강진-해남 구간 2028년 착공 등 해남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속도가 붙었다.

대부분 사업이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어렵고 힘든 사업들이다.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거나 우리 자신이 혜택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해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에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의 일자리를 찾아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레저도시로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며, 청정환경 속 가장 살기편하고, 스마트한 꿈의 도시가 해남에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이뤄진다면 우리 해남의 미래세대는 더 이상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의 시작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해남군의 대도약은 이미 시작되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기고 박성열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남북 관계 회복 '평화 노력' 공유돼야

남북한 관계가 팍 막혀있다. 북한은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한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임을 공표한 데 이어 1월 서해5도 해상 완충구역 포격, 탄도 미사일 발사, 5월-6월간 수차례 오물 풍선 투척 등 다양한 도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6월 19일 푸틴-김정은 회담에서 두 나라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체결을 통해 '침략당하면 즉시 상호 지원한다'는 군사적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남북한 간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은 더 멀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관계가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치달은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국제관계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적 시각은 각 국가는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관철하려 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미중간 안보와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첨예한 국익 경쟁이 맞부딪치는 지정학, 지정학적 현상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일본-한국 대 중국-러시아-북한이 대립하는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구조화된 국제적 질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깨고 자율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풀어나갈 힘을 행사하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남북한 내부 측면에서도 상호 대화와 협력 모티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북한은 경제 위기와 민심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대외 위기를 활용하면서 김정은 권력체제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고, 러시아 지원을 통해 핵무기 고도화와 실질적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뒷전이다. 남한 정부도 보수-진보로 갈라진 진영 정치속에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협상과 타협을 제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은 남북한 관계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민들 간에는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에서 보낸 대형 오물 풍선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내려앉고, 수 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은 현실을 보면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수렁에 빠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특히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도 해소해야 하는 복합적 정책 수요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원칙적인 대응 방향 기초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이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과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핵보장 등 한미 공동선언 등을 통해 이를 북한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강경 대응하되 이면적으로 남한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옵션으로 대북 군사기술 이전 수위를 조절토록 하면서 기존의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러 관계 강화에 불편함이 있는 중국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을 견제할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긴박함과 안보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기관의 정치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사전 탐지하고 최선의 대응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없이 대화 없다'라는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화 통로를 모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 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남북한의 자율에 의한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을 조금씩이라도 열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진일보 @jnli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